

大邱地域 學校周邊 環境에 대한 教師의 認識과 有害業所 實地調査

楊明淑 · 金相順*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Teachers' Understanding of Environment around Schools and Actual Survey in Prejudicial Business in Taegu City

Myung Sook Yang and Sang Soon Kim*

Graduate School of Health, Kyungbuk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by analyzing all problems related to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examining the problems in controlling the areas required for cleanup with 220 teachers in charging the cleanup duties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Taegu between June 1 and July 15, 1993 and by actually surveying the prejudicial business stores around 72 primary schools between August 10 and September 20, 1993.

Although most teachers answered to the questionnaires that it is necessary to cleanup the bad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the duties of its cleanup tend not to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matter.

The teachers considered that the most prejudicial business store around the school is totally the game room, and in such order as comic books' store, liquor selling shop and causing noise and pollution.

57.3% of total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present cleanup movements have resulted in failure mostly because of both supervising authorities' careless promotion and store owners' excessive commercial transactions.

The result of actual survey in environmental and sanitary cleanup area around 72 primary schools showed that the greatest number of 1,258 prejudicial stores was the video tapes shop, and then in such order as lodgings, and game rooms, while the number of prejudicial store by the schools was 17.5 stores per school on the average which showed a various distribution from zero to 77 places. In general, these prejudicial stores were mainly located around the schools in Jung-gu and Seo-gu areas. In addition, it was shown that the more the number of students, the more the number of the prejudicial stores.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it is necessary to strictly carry out the zoning system relating to the usage of land, to strongly restrict the stores without permit and abnormal stores and to establish the basis asking the city development authorities to go through the environmental evaluation. Moreover, it is absolutely required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the national right sense of education, and to closely cooperate with the related authorities.

I. 서 론

인간은 하나의 생물학적인 유기체로서 성장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¹⁾ 인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되어 왔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2,3)} 이 중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촉진하거나 저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사회화 과정을 개인이 집단속에서 태어나서 집단의 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한다면,⁴⁾ 사회에 각 요구하는 적절한 태도와 가치관, 행동양식 등의 학습을 위한 1차적 장(場)이 사회환경인 것이다.⁵⁾ 환경이 유기체에게 작용하는 영향을 크게 교육적 환경, 부교육적 환경, 비교육적 환경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⁶⁾ 교육환경은 통상 교육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교육환경의 정의를 내린다면, 개인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적조건 및 자극의 偶)의 또한 총합적인 구조와 작용이다.⁵⁾ 그런데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별거벗은 상태에서¹⁾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에 의한 영향못지 않게 주변환경에 의한 非意圖)의이고 잠재적인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⁷⁾ 잘 알려져 있는 대로 “孟母三遷之教”의 교훈은 교육환경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변동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구집중과 각종 공해로 인간의 생태적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⁸⁾ 주택가나 학교가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새로 형성되어 가는 주택단지에 유흥업소가 함께 혼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⁹⁾ 특히 최근의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¹⁰⁾ 지역사회의 교육장화, 탈학교화 운동, 개방학교라 해서 학교주변의 모든 것이 교육장화 되어가고 있는 것에 반해 사회분위기는 온갖 성적, 사치향락적 유흥이 거리에 범람하고 있어 학생의 교육적 성취와 건강,¹¹⁾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의 성품과 인격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³⁾ 탈선과 비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11, 13)} 최근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의 대부분의 일탈행위가 향락업소 및 향락유발문화와 결부되어 있다.¹⁴⁾ 그러나 학교환경에 대한 관련법조문은 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¹⁵⁾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 1928 호로 제정·공포되어 지금까지 5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동법 제 5 조 및 제 6 조에 의하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 m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누구든지 일정한 금지행위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동시에 시·도지사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동법 제 19 조에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¹⁵⁾ 이렇게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을 절대적으로 교육장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¹⁶⁾ 실제로는 정화구역내에 금지하고 있는 시설 및 행위들을 학교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선행조사에 의하면 1개교당 98.7개소,¹⁷⁾ 1개교당 27.7개소,¹⁾ 학교주변 6,559개 업소 중 17%인 1,107개가 유해한 업소,⁷⁾ 55개 학교주변 870개의 향락업소 중 438개가 유해했고,¹⁶⁾ 정화구역내 유해업소가 있는 80여 군데 학교 중 95년까지 철거 또는 업종유 변경시켜야 한다고 판정된 업소도 100여 개가 넘는다¹⁾ 것으로 나타나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가정과 사회로부터 추방하여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³⁾ 이와 같이 사회환경이 학교환경이나 가정환경에 못지 않은 교육적 의미나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버려진 채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며⁵⁾ 현재의 관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지적되어야 할 것은 현재 학교주변환경 정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분석 노력이 적다는 점이다.¹⁾ 이에 본 연구자는 대도시인 대구직할시 내의 학교주변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주변환경 정화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을 파악한다.

둘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셋째,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실태를 분석한다.

II. 대상 및 방법

학교주변환경 정화와 관련한 인식조사는 대구시내

133개 국민학교, 83개 중학교, 59개 고등학교 총 275개교의 학교정화업무 담당교사 275명을 대상으로 93년 6월 1일에서 7월 15일 사이에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으며 회수된 231부 중 기재가 부실한 11부를 제외한 22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김명호와 정용,¹⁶⁾ 신중식,¹⁷⁾ 교육부¹⁾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각 요인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χ^2 -test를 사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조사내용은 교사들의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화업무의 중요시 정도, 환경정화의 날에 대한 의견, 정화구역설정 범위 및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금지시설의 유해순위, 교사들의 정화노력 정도 및 정화사업의 주체와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관계부처와의 협조관계, 정화사업의 성과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었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실지조사는 93년 8월 10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 대구 시내 133개 국민학교 중수가 적은 국립 2개교, 사립 4개교는 모두 포함하고 공립 127개교는 7개 행정구역별로 분류한 뒤 66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모두 72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업종은 학교보건법 상에 명시된 시설 및 행위 중 비교적 유흥·소비지향적 업종이라 할 수 있는 극장,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 목욕장 중 휴게시설, 사행행위장, 경마장, 당구장, 전자유기장, 특수목욕장 중 터키탕, 만화가게,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과 앞서의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유해한 순위가 다소 높았던 비디오가게에 대하여 주로 시설, 부착물, 선전물, 소리 등에 의존하여 업종을 조사하였다. 조사범위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상대정화구역인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 m 이내까지로, 2개 이상 학교의 정화구역에 중복되는 업소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이 해당되는 학교에 포함시켰으며, 수집된 자료는 업종별, 학교로부터의 거리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II. 성 적

인식조사에서 응답학교와 비응답학교의 일반적인 특성은 응답학교에서는 국민학교 51.4%, 중학교 29.5%, 고등학교 19.1%이고, 비응답학교에서는 국민학교 36.4%, 중학교 32.7%, 고등학교 30.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

표 1. 인식조사의 응답학교와 비응답학교의 일반적 특성 및 유해업소 비교

	응답학교 (N=220)	비응답학교 (N=55)	p value
학교급별			N.S.
국민학교	113(51.4)	20(36.4)	
중학교	65(29.5)	18(32.7)	
고등학교	42(19.1)	17(30.9)	
설립유형별			N.S.
국립	4(1.8)	0(0.0)	
공립	158(71.8)	33(60.0)	
사립	58(26.4)	22(40.0)	
학생성별			N.S.
남학교	55(25.0)	19(34.5)	
여학교	47(21.4)	14(25.5)	
공학	118(53.6)	22(40.0)	
행정구역별			N.S.
동구	35(15.9)	8(14.5)	
서구	23(10.5)	6(10.9)	
남구	22(10.0)	8(14.5)	
북구	28(12.7)	10(18.2)	
중구	21(9.5)	1(1.8)	
수성구	48(21.8)	8(14.5)	
달서구	43(19.5)	14(25.5)	
유해업소 수	18.5±17.41 (N=60)	13.5±13.59 (N=12)	

립, 사립학교가 각각 응답군 73.6%, 26.4%와 비응답군 60.0%, 40.0%로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생성별, 행정구역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실지조사한 국민학교 72개교 중 설문지에 응답한 60개교와 비응답한 12개교는 유해업소수가 각각 18.5±17.41개, 13.5±13.59개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

초·중등학교의 교사가 학교주변의 나쁜 환경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급별로, 설립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94.5%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2).

이들 교사들의 93.2%가 학교주변환경 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설립유형별로는 사립학교가 학교주변환경 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표 2. 초·중등학교 정화업무 담당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주변 나쁜 환경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급 별			설 립 별		계 (N=220)
	국민학교 (N=113)	중학교 (N=65)	고등학교 (N=42)	국·공립 (N=162)	사립 (N=58)	
영향을 미친다	107(94.7)	61(93.8)	40(95.2)	152(93.8)	56(96.6)	208(94.5)
미치지 않는다	5(4.5)	4(6.2)	2(4.8)	9(5.6)	2(3.4)	11(5.0)
잘 모르겠다	1(0.8)	0(0.0)	0(0.0)	1(0.6)	0(0.0)	1(0.5)

표 3. 초·중등학교 정화업무 담당교사가 인식하는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필요여부

	급 별			설 립 별		계 (N=220)
	국민학교 (N=113)	중학교 (N=65)	고등학교 (N=42)	국·공립 (N=162)	사립 (N=58)	
필요하다	106(93.8)	59(90.8)	40(95.2)	150(92.6)	55(94.8)	205(93.2)
필요치 않다	6(5.3)	5(7.7)	2(4.8)	10(6.2)	3(5.2)	13(5.9)
잘 모르겠다	1(0.9)	1(1.5)	0(0.0)	2(1.2)	0(0.0)	2(0.9)

표 4. 현재 매월 첫째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화의 날이 적당하지에 대한 의견

	급 별			설 립 별		계 (N=220)
	국민학교 (N=113)	중학교 (N=65)	고등학교 (N=42)	국·공립 (N=162)	사립 (N=58)	
적당하다	57(50.4)	34(52.3)	24(57.1)	83(51.2)	32(55.2)	115(52.3)
적당치 않다	48(42.5)	25(38.5)	14(33.3)	65(40.1)	22(37.9)	87(39.5)
모르겠다	8(7.1)	6(9.2)	4(9.5)	14(8.6)	4(6.9)	18(8.2)

* 현재 매월 첫째 토요일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공무원, 경찰관 등이 참여하여 각급 학교의 정화구역을 순회하면서 유해업소 방문 제도, 불법광고물 제거, 주변청소, 전단배포, 불량만화·시적·비디오 추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표 5. 환경정화의 날로서 매월 첫째 토요일이 적당치 않다고 한 이유

이 유	No.(%)
너무 자주 실시해서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40(46.0)
토요일은 개인적인 계획이 많다	19(21.8)
학교에서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9(10.3)
아동들의 캠페인으로는 효과가 없다	6(6.9)
학생, 시민의 귀가시간이라 거리가 혼잡하다	6(6.9)
유해업소 영업시간이 오후 5시 이후이므로 업주를 만날 수 없다	4(4.6)
기 타	2(2.3)
무응답	6(1.1)
계	87(100.0)

율이 더 높았다(표 3).

현재 학교주변환경 정화의 날로서 매월 첫째 토요일 방과 후에 시행되고 있는 정화캠페인의 숫수와 시각이 적당하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52.3%이었으나 39.5%가 적당치 않다고 응답했다(표 4).

적당치 않다고 응답한 87명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너무 자주 실시해서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가 46.0%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은 개인적인 계획이 많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21.8%, 정화업무는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할

표 6. 환경정화 캠페인을 시행하기에 적당한 횟수

의견	No.(%)	횟수	No.(%)
월 1회 초과	8(15.4)	월 2회 월 4회	7(13.5) 1(1.9)
월 1회 미만	44(84.6)	연 1회 연 2회 연 4회 연 5회 연 6회	3(5.8) 13(25.0) 25(48.1) 1(1.9) 2(3.8)
계	N=52		N= 52

일이라는 의견이 10.3%, 아동들의 캠페인으로는 효과가 없다, 귀가 시간이라 거리가 혼잡하다가 각각 6.9%, 유해업소 영업시간이 오후 5시 이후이므로 업주를 만날 수 없다고 4.6%였다(표 5). 학교주변 환경 정화 캠페인을 시행하기에 횟수가 적당치 않다고 응답한 52명에 대해 적당한 횟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월 1회보다 자주 실시하자는 의견보다 월 1회 미만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연 4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48.1%, 연 2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25.0%였다(표 6).

학교주변환경 정화 캠페인을 시행하기에 시각이 적당치 않다고 응답한 65명에 대해 적당한 시각에

표 7. 환경정화 캠페인을 시행하기에 적당한 시각에 대한 의견

의견	No.(%)
오후수업 있는 날 방과 후 평일 오전수업일 방과 후	44(67.7) 21(32.3)
계	65(100.0)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오후 수업이 있는 날 방과후가 67.7%로 평일 중 오전수업일 방과 후 32.3%보다 더 높았다(표 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서 현행대로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41.4%였으나, 절대구역, 상대구역 모두 학교출입문 및 주통학로가 기준으로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43.6%나 차지했다. 두 구역 모두 학교경계선이 기준으로서 타당하다는 의견은 14.1%였고, 학교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표 8).

표 9는 학교보전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 및 시설과 신중식(1981), 교육부(1992b)의 조사에서 비교적 유해하다고 본 시설들을 제시하고, 어떤 업소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되는지 순서별로 3순위까지 적게

표 8. 학교주변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기준에 대한 의견

기 준	N=220
현행대로 절대구역은 학교출입문, 상대구역은 학교경계선이 기준으로 타당하다	91(41.4%)
절대구역, 상대구역 모두 학교출입문 및 주통학로가 기준으로서 타당하다	96(43.6%)
절대구역, 상대구역 모두 학교부지의 경계선이 기준으로서 타당하다	31(14.1%)
학교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정하자	2(0.9%)

표 9. 초·중등학교 정화담당교사가 생각하는 학교주변업소 중 유해한 순위

순 위	전 체 (N=220)	단 위 (점)	국민학교 (N=113)	중학교 (N=65)	고등학교 (N=42)
1	전자오락실	(305)	전자오락실	전자오락실	전자오락실
2	만화가게	(205)	만화가게	만화가게	주류판매점
3	주류판매점	(99)	변태문방구	주류판매점	만화가게
4	소 음	(94)	공해업소	공해업소	당구장
5	공해유발업소	(91)	비디오가게	소 음	소 음
6	비디오가게	(76)	소 음	비디오가게	숙박업소
7	변태문방구	(71)	주류판매점	숙박업소	불량광고물
8	숙박업소	(61)	숙박업소	변태문방구	공해업소
9	당구장	(34)	불량광고물	노점·행상	노점·행상
10	불량광고물	(32)	노점·행상	당구장	비디오가게

표 10. 학교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정화요청시 업주들의 협조정도에 대한 의견

	급 별			설 립 별		계 (N=220)
	국민학교 (N=113)	중학교 (N=65)	고등학교 (N=42)	국·공립 (N=162)	사립 (N=58)	
잘 되고 있다	14(12.4)	5(7.7)	5(11.9)	18(11.1)	6(10.3)	24(10.9)
잘 안되고 있다	72(63.7)	46(70.8)	34(81.0)	106(65.4)	46(79.3)	152(69.1)
잘 모르겠다	27(23.9)	14(21.5)	3(7.1)	38(23.5)	6(10.3)	44(20.0)

표 11. 학교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정화요청시 업주들의 협조어부에 대한 의견

내 용	N=152
정화사업에 위배되어 단속할 때만 협조가 될 따름이다	8(5.2)
금지업소의 제거요청을 하여도 시정이 잘 안된다	24(15.8)
정화요청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몰어 업자와의 반목이 심하다	6(3.9)
인근 주민의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을 볼 수 있다	22(14.5)
학교장에게는 금지업소를 단속할 권한이 없다	91(59.9)
기 타	1(0.7)

표 12. 초·중등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운영의 합당성 여부

	급 별			설 립 별		계 (N=220)
	국민학교 (N=113)	중학교 (N=65)	고등학교 (N=42)	국·공립 (N=162)	사립 (N=58)	
합당하게 운영된다	14(12.4)	9(13.8)	8(19.0)	23(14.2)	8(13.8)	31(14.1)
보통이다	19(16.8)	13(20.0)	4(9.5)	25(15.4)	11(19.0)	36(16.4)
합당하게 운영되지 않는다	28(24.8)	10(15.4)	9(21.4)	40(24.7)	7(12.1)	47(21.4)
운영상황을 잘 모르겠다	52(46.0)	33(50.8)	21(50.0)	74(45.7)	32(55.2)	106(48.2)

킨 뒤, 각 순위별로 3점, 2점, 1점씩을 부여하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전자오락실 305점, 만화가게 205점, 주류판매점 99점, 소음 94점, 공해 유발업소 91점, 비디오가게 76점, 변태문방구 71점, 숙박업소 61점, 당구장 34점, 불량광고물 32점 등의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전자오락실의 유해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민학교에서는 만화가게, 변태문방구, 공해유발업소 순으로, 중학교는 만화가게, 주류판매점, 공해유발업소, 고등학교에서는 주류판매점, 만화가게, 당구장의 순으로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민학교에서는 변태문방구를, 고등학교에서는 주류판매점과 당구장을 타 급의 학교보다 더 유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보건법에 금지행위 및 시설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소음과 공해유발업소는 4위와 5위였고 비디오가게는 6번째로 유해하다고 응답했다(표 9).

학교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정화요청시 업주들과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9.1%였고 초·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국·공립보다 사립학교가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한율이 더 높았다(표 10).

업주들과 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한 152명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학교장에게는 금지업소를 단속할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금지업소의 제거요청을 하여도 시정이 잘 안된다는 경우가 15.8%, 인근주민의 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이 14.5%였다(표 11).

대구직할시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합당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4.1%, 보통이다가 16.4%였고, 합당하게 운영되지 않는다와 운영상황을 잘 모르겠다가 각각 21.4%, 48.2%로 운영이 합당하다는 견해보다 합당치 않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표 12).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정화사업의 결과에 대해

표 13.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환경정화 사업의 결과에 대한 이견

	급 별			설 립 별		계 (N=220)
	국민학교 (N=113)	중학교 (N=65)	고등학교 (N=42)	국·공립 (N=162)	사립 (N=58)	
성공하였다	19(16.8)	6(9.2)	6(14.3)	27(16.7)	4(6.9)	31(14.1)
그저 그렇다	11(9.7)	3(4.6)	2(4.8)	14(8.6)	2(3.4)	16(7.3)
실패하였다	61(54.0)	40(61.5)	25(59.5)	87(53.7)	39(67.2)	126(57.3)
잘 모르겠다	22(19.5)	16(24.6)	9(21.4)	34(21.0)	13(22.4)	47(21.3)

표 14. 학교주변환경 개선의 실패 이유

	국민학교 (N=61)	중학교 (N=40)	고등학교 (N=25)	계 (N=126)
업주와의 의사소통 부족	3(4.9)	3(7.5)	2(8.0)	8(6.3)
감독기관의 업무집행 소홀	33(54.1)	30(75.0)	13(52.0)	76(60.3)
업주들의 지나친 상행위	22(36.1)	7(17.5)	9(36.0)	38(30.2)
학생들의 무절제한 행위	3(4.9)	0(0.0)	(0.0)	3(2.4)
무응답	0(0.0)	0(0.0)	1(4.0)	1(0.8)

표 15.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교주변환경 개선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급 별			설 립 별		계 (N=220)
	국민학교 (N=113)	중학교 (N=65)	고등학교 (N=42)	국·공립 (N=162)	사립 (N=58)	
학생지도	43(38.1)	16(24.6)	15(35.7)	57(35.2)	17(29.3)	74(33.6)
행정당국과 합동단속	22(19.5)	16(24.6)	8(19.0)	34(21.0)	12(20.7)	46(20.9)
업주와의 대화	9(8.0)	3(4.6)	2(4.8)	13(8.0)	1(1.7)	14(6.4)
학생들의 교내흡수	7(6.2)	5(7.7)	5(11.9)	11(6.8)	6(10.3)	17(7.7)
학생놀이문화의 보급	22(19.5)	16(24.6)	11(26.2)	30(18.5)	19(32.8)	49(22.3)
문화공간의 이용	8(7.1)	5(7.7)	1(2.4)	13(8.0)	1(1.7)	14(6.4)
기 타	2(1.8)	2(3.1)	0(0.0)	3(1.9)	1(1.7)	4(1.8)
무응답	0(0.0)	2(3.1)	0(0.0)	1(0.6)	1(1.7)	2(0.9)

서 성공하였다고 보는 견해는 14.1%, 실패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57.3%, 그저 그렇다는 7.3%, 잘 모르겠다는 21.3%도 성공하였다고 보는 견해보다 실패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았다(표 13).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정화사업이 실패하였다고 응답한 126명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감독기관의 업무집행 소홀 때문이라는 의견이 60.3%로 가장 높았고, 업주들의 지나친 상행위 때문이라는 의견은 30.2%가 응답했다(표 14).

학교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학생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경우는 33.6%, 건전한 학생 놀이문화를 보급하자는 경우가 22.

3%, 행정당국과 학교의 합동단속이 20.9%였다(표 15).

대구시내 국민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유해업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2개 학교의 정화구역을 실지조사한 결과는 표 16~18과 같다.

조사대상학교는 총 133개 학교 중 국립 2개교, 공립 66개교, 사립 4개교로서 54.1%인 72개교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학생수는 1~500명인 학교가 6.9%, 501~1,500명이 40.3%, 1,501~2,500명이 36.1%, 2,501명 이상인 학교가 16.7%로 비대상학교의 501~1,500명이 29.5%, 1,501~2,500명이 45.9%인데 비해 조사대상학교는 501~1,500명인 학교가, 비대상학교는 1,501~2,500명인 학교가 더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6).

표 16. 국민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실시조사 학교와 비조사 학교의 특성 비교

	조사학교	비조사학교	계*
	No.(%)	No.(%)	No.(%)
설립별			
국립	2(2.8)	0(0.0)	2(1.5)
공립	56(91.7)	61(100.0)	117(95.5)
사립	4(5.6)	0(0.0)	4(3.0)
학생수			
≤500	5(6.9)	4(6.6)	9(6.8)
500~1,500	29(40.3)	18(29.5)	47(35.3)
1,501~2,500	26(36.1)	28(45.9)	54(40.6)
2,501≥	12(16.7)	11(18.0)	23(17.3)
지역별			
동구	14(19.4)	12(19.7)	26(19.5)
서구	9(12.5)	8(13.1)	17(12.8)
남구	7(9.7)	5(8.2)	12(9.0)
북구	10(13.9)	9(14.8)	19(14.3)
중구	7(9.7)	5(8.2)	12(9.0)
수성구	12(16.7)	11(18.0)	23(17.3)
달서구	13(18.1)	11(18.0)	24(18.0)
계	72(54.1)	61(45.9)	133(100.0)

*대구교육통계연보²⁴⁾에 의함.

실태조사 결과 업종별로는 비디오가게가 398곳으로 가장 많아 조사업종 중 31.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숙박업소 213곳(16.9%), 전자오락실 193곳(15.3%), 당구장이 141곳(11.2%) 순으로 많았고 극장,

전문음식점, 간이주점, 공중 목욕장 중 휴게시설, 사행행위장, 경마장, 특수 목욕장 중 터키탕 등의 업종은 조사구역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거리별로는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이내까지의 지역인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37개 업소로 노래연습장이 11곳, 숙박업소가 8곳 있었으며,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에는 152개였고, 50~200 m 사이에는 1,106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내에는 1,221개로서 모두 1,258개의 유해업소가 있었다. 단위면적 100 m²에 대한 업소수율 보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 m이내에는 0.47개, 50~100 m 사이에는 0.58개, 100~150 m 사이에는 0.53개, 150~200 m 사이에는 0.61개로 전체적인 평균은 단위면적 100 m² 당 0.56개였다(표 17).

표 17에서의 각 업소들을 학교설립유형별, 학생수별, 행정구역별로 분류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평균 17.5개의 유해업소가 있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립 2개교는 업소수가 각각 27개, 46개였고 공립 66개교는 0에서 77개, 사립 4개교는 6에서 33개의 업소가 있었다.

학생수가 1~500명인 5개교는 0개에서 16개로 평균 3.4개, 501~1,500명인 29개교는 1개에서 77개로 평균 17.5개, 1,501~2,500명인 26개교는 1개에서 47개로 평균 16.7개, 2,501명 이상인 12개교는 9개에서 67개로 평균 24.9개로 분포하고 있었는데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업소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17. 국민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수

업종	절대정화구역*	학교로부터의 거리				계
		0-50 m ^b	50-100 m	100-150 m	150-200 m ^c	
유흥음식점	1	5(3.3)	14(5.0)	27(7.9)	57(11.7)	103(8.2)
무도장·무 ² 학원	0	0(0.0)	3(1.1)	4(1.2)	7(1.4)	14(1.1)
숙박업소	8	19(12.5)	50(18.0)	66(19.4)	78(16.0)	213(16.9)
당구장	4	18(11.8)	24(8.6)	35(10.3)	64(13.1)	141(11.2)
전자오락실	6	33(21.7)	44(15.8)	57(16.8)	59(12.1)	193(15.3)
만화가게	3	12(7.9)	19(6.8)	26(7.6)	39(8.0)	96(7.6)
노래연습장	11	11(7.2)	14(5.0)	24(7.1)	51(10.5)	100(7.9)
비디오가게	4	54(35.5)	110(39.6)	106(29.7)	133(27.3)	398(31.6)
계	37	152(12.1)	278(22.1)	340(27.0)	488(38.8)	1,258(100.0)
단위면적당 업소수 (업소수/100 m ²)		0.47	0.58	0.53	0.61	0.56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 m까지의 지역

^b0~5 m 이내의 업소수는 절대정화구역내 업소수를 합한 수입

^c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 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표 18. 대구시내 설립유형별, 학생수별 및 행정구역별 유해업소수 비교

	No.	Min-Max	Mean± S.D.
설립유형별			
국립	2	27-46	36.5± 13.44
공립	66	0-77	16.9± 16.88
사립	4	6-33	17.3± 10.31
학생수별			
≤500	5	0-16	3.4± 7.06
500~1,500	29	1-77	17.5± 19.72
1,501~2,500	26	1-47	16.7± 12.94
2,501≥	12	9-67	24.9± 16.11
행정구역별			
동구	14	0-74	21.6± 20.53
서구	9	10-68	26.2± 17.46
남구	7	4-27	14.3± 8.58
북구	10	0-9	3.0± 2.75
중구	7	8-77	31.3± 23.43
수성구	12	3-31	12.0± 8.94
달서구	13	2-49	17.5± 14.15
계	72	0-77	17.5± 16.70

행정구역별 평균업소수는 중구소재 학교가 31.3개도 가장 높았고, 서구소재 학교가 26.2개, 동구소재 학교가 21.6개였다. 가장 적은 지역은 북구소재 학교로 평균 3.0개였다(표 18).

IV. 고 찰

본 연구는 대구지역 초·중등학교의 환경정화업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주변환경관리의 문제점을 설문조사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실지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주변의 나쁜 환경이 학교교육에 나쁜 영향 끼친다는 것에는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대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94.5%). 설립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국·공립학교는 93.8%, 사립학교는 96.6%로 나타나 2.8%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¹¹⁾의 연구에서는 사립 학교들이 국·공립학교보다 주변환경이 학교교육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학교주변의 정화에 대해서는 93.2%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김명호와 정용¹⁸⁾의 78.5%, 교육부¹¹⁾의 78.7%보다 높은 비율로 아마 대도시인 대구직할시가

다른 지역보다 주변환경 오염이 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의 연간교육계획 중에서는 정화업무가 중요시되기(13.2%) 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32.7%)가 더 많았고 정화업무는 행정관청이 추진주체로서(45.0%), 책임소재로서(56.8%) 학교의 9.1%, 0.9%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정화요청시 업주들과 협조가 잘 안 되는 이유 중 학교장에게 금지업소를 단속할 권한이 없어 빚어지는 어려움이 60.1%나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환경정화 사업의 결과에 관한 의견 중 "성공하였다"가 14.1%인데 비해 "실패하였다"가 57.3%였고 실패한 이유는 감독기관의 업무집행 소홀이라고 답한 것이 60.3%, 업주들의 지나친 상행위가 30.2%로 나타났다. 신중식¹⁷⁾의 연구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성공으로 생각하는 학교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교육부¹¹⁾의 연구에서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학교(8.8%)보다는 성공으로 생각하는 학교(14.3%)가 다소 많았고 대도시, 공업지역의 학교는 실패하였다고 보는 경향이 더 높았다. 실패한 이유는 앞서의 두 연구 모두 업주들의 지나친 상행위, 감독기관의 업무집행 소홀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현재 학교주변 환경정화 사업이 단속권한이 없는 학교의 주도하에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학교에 정화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보고¹⁹⁾와 일치하였다. 한편 사업의 주체가 학교보다는 행정관청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학교측은 협조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기준은 현행대로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41.4%)보다 절대구역, 상대구역 모두 학교출입문 및 주통학로가 기준으로서 타당하다는 의견(43.6%)이 더 높게 나타났고 선행연구에서도 학교부지가 경계선이 되기보다는 학교출입문 및 주통학로가 기준으로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았다.^{1, 17)} 그리고 연구자가 실지조사해 본 결과에 비추어 봐서도 유해업소들이 정화구역내보다는 불과 100m도 벗어나지 않은 통학로를 중심으로 변화가 또는 교차로 등 교통중심지에 유해환경이 밀집되어 있어 정화구역설정에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었는데 이는 서울 YMCA¹⁶⁾와의 의견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학교마다의 현실에 맞게 정화구역을 설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므로¹¹⁾ 정화구역 설정기준의 타당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구지할시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합당성 여부를 묻는 물음에 대해 합당하게 운영된다는 의견(14.1%)에 비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48.2%)과 합당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견(21.4%)이 훨씬 높는데 김명호와 정용¹⁸⁾의 합당하다는 의견 53.4%,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 5.0%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화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미약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금지된 행위와 시설에 대하여 정화조치를 요청할 뿐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인 정화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²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방지 또는 질거조치를 요청하여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¹⁹⁾ 따라서 정화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고 권한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연구자의 유해업소 실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전 자오락실과 만화가게는 교사들이 인식한 유해순위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각각 193개소, 96개소로서 조사대상 유해업소수의 23.0%나 차지하고 있어 이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학교보건법에 금지되어있지 않은 비디오 가게는 교사들의 인식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76점이고 6위의 비교적 높은 유해순위로 느끼고 있고 응답자의 3.1%가 다른 업종들에 비해 가장 유해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교육부²¹⁾의 연구에서도 역시 유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디오가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설립유형별 유해업소수에서 국립 36.5개, 공립 10.9개, 사립 17.3개로 국립교가 공·사립보다 유해업소가 훨씬 더 많은 것은 국립교가 유해업소가 밀집한 비교적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유흥음식점은 업소 입구에 허가증별을 유흥음식점으로 명시한 곳은 모두 조사되었으나 대중음식점(일반음식점) 허가주류를 판매하는 변태영업행위는 조사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외되어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유흥음식점 형태의 주류판매점은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國家 百年之大計인 교육을 위하여 열악한 학교주변 환경을 법률적인 개선과 가시적인 정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학교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구역을 주택지구, 상업지구, 공업지구, 유흥·오락지구 등 이용의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하게 하는 用

度區域制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교육상 유해한 자극을 주는 환경으로부터 학교환경과 가정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²¹⁾ 그리고 유흥업소 업주들의 청소년 출입에 대한 태도조사^{22, 14)}에서 청소년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대답이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9.5%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업주들의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하며²³⁾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²⁴⁾ 그리고 학교관계자, 환경전문가,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이나 신축건물의 건축시에는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에 개발이나 건축이 추진되도록 하고,^{25, 26)}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도시개발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²⁷⁾

교육이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교육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라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주변의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정, 도시계획 관련기관, 유해업소의 업주, 내무부 등 학교 이외 여러 기관들이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교육환경의 개선에 협조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93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대구시내 초·중등학교 학교정화업무담당교사 275명 중 설문지가 회수된 220명을 대상으로 학교주변환경 정화에 대한 인식과 정화구역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년 8월 10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 국민학교 72개교의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실지조사한 결과를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주변의 나쁜 환경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의 연간계획 중 정화업무의 중요시 정도는 다른 업무보다 비교적 중요시되기 보다는 중요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현재 매월 첫째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화의 날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52.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39.5%는 적당치 않다고 응답했으며, 적당치 않은 이유는 행사를 자주 실시해서 형식적이라는 의견과 토요일은 개인적인 계획이 많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많았고 횟수는 연 4회 정도로서 오후수업 마친 후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화담당교사가 생각하는 학교주변업소의 유해한 순위는 전체적으로 전자오락실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화가게, 주류판매점, 소음, 공해유발업소 등의 순이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환경정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57.3%가 실패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감독기관의 업무집행 소홀이 60.3%, 업주들의 지나친 상행위가 30.2%를 차지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주변환경 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학생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72개 국민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해 실시 조사한 결과 발견된 1,258개 유해업소 중 비디오가게가 398개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소 213개, 전자오락실 193개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별 유해업소수는 1개교당 평균 17.5개로 업소는 0개에서 77개까지 분포가 다양했고 절대정화구역내에는 37개,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1,221개가 있었다. 유해업소는 대체로 중구, 서구 소재학교에 밀집해 있었고 학생수가 증가할수록 업소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상 用度區域製를 엄격히 실시하고 도시개발 시에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국민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노력과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교육개혁심의회 : 교육개혁 종합구상. 1987.
2. 교육개혁심의회 : 학교환경을 진단한다. 1986.
3. 교육법전 편찬위원회 : 교육법전. 교학사, 서울, 1993.
4. 교육부 : 교육월보 통권 제 112 호, 1991. 4.
5. 교육부 : 교육월보 통권 제 125 호, 1992a.
6. 교육부 : 교육월보 통권 제 126 호, 1992b.
7. 교육정책자문회의 : 교육발전의 기본구상. 1991.
8. 김명호, 정 종 : 학교환경위생관리실태조사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979.
9. 김주성 : 학교보건개론. 2판, 형설출판사, 서울, 1985.
10. 김창길 : 학교환경의 개념과 조건. 교육연구사, 서울, 1985.
11. 대구직할시교육위원회 : 대구교육. 제 18 호, 1990. 12.
12. 대구직할시교육청 : 대구교육통계연보. 1993.
13. 문교부 : 학교정화운동추진자료. 1983.
14. 박용현 : 사회적 행동과 학습. 교육출판사, 서울, 1973.
15. 박종열 : 교육사회학. 배영사, 서울, 1983.
16. 서울 YMCA :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조사보고서. 1989.
17. 신중식 :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연합회 정책연구, 제 33 집, 1981.
18. 정원식 : 교육환경론. 교육출판사, 서울, 1975.
19. 차경수 : 교육환경의 개선방안. 교육부 교육개혁심의회, 1987.
20. 체육청소년부 : 청소년백서. 1988.
21. 한국교육신문사 : 새교육. 통권 제 427 호, 한국교육신문사, 서울, 1990. 5.
22. 한국교육학회 : 교육학연구. 제 31 권, 1993.
23. 한국학교보건학회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 3 권, 1990.
24. 한준상 : 청소년 문제와 학교교육. 연세대학교 출판부, 서울, 1989.